

본문 말씀 요약 (3 / 31) 2013

제 목 : 우리가 누리는 부활

성경말씀 : 누가복음 20 : 27 ~ 40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사두개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반대와 비난을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비난과 불신을 깨뜨리고, 자신께서 하늘
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있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를 이미 살려내셨고, 자신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 시켜 주셨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었다.

그렇다 !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떤 것이겠는가?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흙에서 취해 만든
육신으로 결합돼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값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영혼이 죽고 육신만 살아 있음으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
하여 죄만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뿔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죄 값으로 영혼이 죽었고, 죄 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 값에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죄 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억만 가지 모든 죄악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용서를 받는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 받았기에 죄 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이 거듭남이요 곧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의 부활이며 첫째 부활이다.

둘째,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서 다시 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부터 약 4,000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로부터는 약
2,000 년 전인데, 2,000 년 전에 살다가 죽었으니 그 육신들은
썩고 또 썩고 산화되어서 아무런 흔적이 없이 되었다.

썩어 없어졌든지 안 없어졌든지 죽은 것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
으니, 이것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육신은 소멸되어
없어졌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고 있기에,
하나님은 살아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당당하게 칭하셨다.
몸이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서 다시 사는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셋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위와 나팔소리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물을 심판하실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 이때에 천국에서 살던
성도들의 영혼과 땅에 산화되어 없어졌던 성도들의 몸이 재결합
하여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데살전4:16-18)

이것이 셋째 부활이며, 이때에 죽지 않고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체가 되어 천년왕국과 영원무궁한 천국복락을 누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죽어도 죽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 시기가 이때쯤이며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에,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곧 주일(主日)이라 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 축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지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9 (새 찬송가 1. 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 예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후사를 세우라 했습니다.
- 칠형제가 있는데 맏이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같이 하여
-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으니 부활 때에
-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 연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가고
-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와 같으니라. - 아 멘 -

찬 송 : 150 (새 찬송가 160)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누가복음 20 : 27 ~ 40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우리가 누리는 부활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51 (새 찬송가 162)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임미이 집사 (다음 김영자 집사)

기 도 : 김정숙 집사 (다음 임예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경순 집사 (다음 정명숙 집사)

기 도 : 김영복 집사 (다음 이옥심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열왕기상)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열왕기상)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며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부활절 감사예배.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값을 담당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주일입니다.

① 세례와 성찬예식이 거행됩니다.

경건하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② 오후 예배 후, 2부 축제순서

누가복음에서의 성경퀴즈와,

남녀 각전도회별 찬양경연 있습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수요 밤 예배시간은, 하절기인지라

7시에서 7시 30 분입니다.

3. 금요 밤 기도회.

금요 밤(5일) 기도회는

5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4.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

이번 주간은 1교구 2교구를 체크합니다.

유덕남 집사님에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찬호 님

명지 @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본문 말씀 요약 (4 / 7) 2013

제 목 :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성경말씀 : 누가복음 6 : 22 ~ 26

사람은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감정이 민감하다. 감정이 민감하다보니 희(喜) 노(怒) 애(哀) 낙(樂)에도 민감하여 주위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느낌에서 그때그때 영향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흑암의 구렁텅이 빠져 불행해지기도 하고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책망을 받으면 싫어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다” 고 하시며 칭찬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말씀하셨다.

물론 잘한 일에 칭찬과 상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하지 않으면 위선이 되며 죄악이 된다. 첫째, 칭찬을 받을 것을 생각하여 일을 하지 말라.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칭찬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일이든, 칭찬과 상급이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이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일이라 행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고 옳바른 일인데도 행하지 않은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고도 실망할 수가 있다.

인류 역사와 현실 세상의 흐름을 보라 ! 그 어느 시대나 옳고 좋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 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나쁘고 악한 일임에도 그것을 좋게 여겨 찬양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임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정치적으로 공산 독재주의가 얼마나 낙후되고 잘못된 사상인가? 그런데도 그것을 찬양(칭찬)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종교적으로도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믿는 일은 모든 인생들의 마땅한 도리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 최대요 최고의 축복임에도 이를 칭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옳고 바른 일이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생각에 좋게 여겨지면 칭찬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될 때에만 칭찬을 한다. 그렇기에 칭찬을 받으려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까 안 해줄까를 생각하여 하지 말고, 옳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좋은 일 바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을 안 해주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했다” 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후회 하고 자기가 손해 본 것처럼 여긴다. 또 좋은 일, 옳은 일을 했음에도 칭찬이 없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다시는 그 좋은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진정 옳바른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해주어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믿고, 바르고 선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참 믿음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라.

제 아무리 바르고 좋은 일을 했어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욕심이며 교만이다.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의 죄 값 대신 목숨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여 천국복락까지 누리게 하셨지만 그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서는 칭찬 받지 않으셨다.

링컨, 에디슨, 간디, 세종대왕, 이순신 등 인류 역사에 공헌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라 ! 그들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며 화 받을 일이 되는 것이다.

바르고 좋은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의 우리의 자세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눅17:10) 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96 (새 찬송가 2, 8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
- 화있으라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 화있으라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 화있으라 너희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 것이다.
-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 아 멘 -

찬 송 : 155 (새 찬송가 165)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누가복음 6 : 22 ~ 26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55 (새 찬송가 323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김영자 집사 (다음 최은희 집사)

기 도 : 임예진 집사 (다음 이매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정명숙 집사 (다음 채혜경 집사)

기 도 : 이옥심 권사 (다음 박숙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열왕기상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 제직회.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예전대로 월례 제직회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2.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수요 밤 예배시간은,

하절기라 7시에서 7시 30 분입니다.

3.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 밤(12일) 기도회는

6교구 전 구역 주관으로 열립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4. 신 앙 성 장 프 로 그 램 체크

이번 주간은 3교구 4교구를 체크합니다.

유덕남 집사님에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노찬호 님

명지 @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중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본문 말씀 요약 (4 / 14) 2013

제 목 : 믿음의 생명을 살려라

성경말씀 : 출애굽기 1 : 8 ~ 22

본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 년 전에 이집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에 과거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기록하여 주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집트의 뜻은,

1) 이 세상이다. 2) 불신앙의 대표다. 3) 마귀의 세력이다.

이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세력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반대하며 악화시키려 하는데 그 방법은? (8~22)

1. 힘든 일로 괴롭힌다. (11~14)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나게 해서 그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삶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어렵게 한다.

2.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한다. (11~14)

여기저기 성을 건축하는데 동원을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을 만들어 굽게 하며, 농사에 여러 가지 일들과 세상일 등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하여서, 성도들이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도록 분주하게 한다.

3. 죽이려고 한다. (15~16)

“여자는 살리고 남자를 죽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편을 따라 살 듯, 성도가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여자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대로 두고, 남자처럼 주관을 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참 믿음을 지켜가려는 성도들은 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 아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22)

여기 물은 나일강물인데, 이는 사람으로는 거스릴 수 없는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나 물질만능주의와 최악 된 것들의 흐름과 어떤 유행이나 악 사상 등을 뜻한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빠져들고 종속되게 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물에 허우적거리다가 한 평생 죄나 짓게 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가운데 살다가 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다.

위 네 가지는 출애굽 시대에 그 세상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세력들과 악한 영의 세력이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여전히 현 세상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력들과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둘러싸고 침투해서 참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려 한다.

이때에 참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첫째, 핍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12, 15~17)

어떤 일이든지 핍계대고 두려워하면 이미 그 일에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다, 바쁘다, 위험하다, 재미없다 등 핍계대지 말고, 세상이나 불신세력들과 악령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부디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세우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

둘째, 믿고 기도하며 돕고 섬겨라. (17~19)

산파들이 하는 일이 새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듯, 모든 직분자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은 어린 생명들과 새로운 생명들의 영혼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다.

어린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며 보살펴주고 그들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섬겨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 (롬10:17)

섬기며 사랑하는 목적은 그 영혼이 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혼이 잘되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을 순종함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잘 익히고 순종하면서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심어줘야 한다.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말씀이 필요하고, 이미 살아난 영혼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다.

또한 나 자신이 잘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익혀 전해줘야 한다.

위 세 가지를 잘하면, (20~2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산파역을 한 성도도 축복을 받고, 모든 백성이 축복을 받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화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희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애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40 (새 찬송가 1, 7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도와주며

○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게 두라.

◎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 이집트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낸지라

◎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왕성케 하고 축복하셨더라.

- 아 멘 -

찬 송 : 241 (새 찬송가 202)

기 도 : 목 사 (다음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출애굽기 1 : 8 ~ 22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믿음의 생명을 살려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04 (새 찬송가 379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승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준자 이준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이윤교 집사 (다음 최은희 집사)

기 도 : 이매순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채혜경 집사 (다음 정기화 집사)

기 도 : 박숙희 집사 (다음 김영님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특별 세미나.

주제 : 자녀들과 효과적인 소통방법

강사 : 김금운 권사 (동명교회)

샘솟는 아동청소년상담센터소장.

초당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일시 : 4월 21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3시부터

2. 화요 전도토일

매주 화요 오전 10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3. 금요 밤 기도회.

금요 밤(19일) 기도회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4. 신앙성장 프로그램 체크

이번 주간은 5교구 6교구를 체크합니다.

유덕남 집사님에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허운

풍암 주택

본문 말씀 요약 (4 / 21) 2013

제 목 : 선한 일군을 세워라

성경말씀 : 사도행전 6 : 1 ~ 7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군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생명운동을 이루어 가시며, 그
자격에 대하여 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울 때의 과정인데,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불과 몇 달 만에 수천수만의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유무상통하고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불과 12명의 사도로서는 그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게 보살피기가 어려워 여러 교우들에게서
불편한 일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에 선한 일군들을 세우게 됐는데,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다.

위 말씀을 합하면, 1) 성령 충만 2) 믿음 충만 3) 지혜 충만
4)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자신을 믿음과 말씀에
순종시켜서 충성하므로 자연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
첫째,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드리는 일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는가? 지각하여 줄거나 잡념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무심하거나
거부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제일 존귀하고 기쁘게 여기며,

그 자리에 늦거나 빠질 수가 없으며

눈을 감고 줄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압박을 한다 해도
겸손히 회개하며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지
감히 거부적이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제도에 협력한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고 좋지 않음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임을 알고, 선포되는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한다.
교회에 일군을 세운 목적이 교회에 불편한 일을 줄이고, 원망할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는데, 정작 교회에 일군 된 자가 교회의
일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판이나 원망을 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도 없고 칭찬 받을 수도 없다.

셋째,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다. (말라기 3:8-12)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나 헌금
을 아까워하며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지혜로 보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영, 육간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을 얻는 일이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고
타락된 문화나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수가
없다. 돈에 사로잡히거나 술, 담배, 도박, 게임 등의 타락된
문화와 미신적인 풍속이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사람은
교회의 귀중한 일군으로는 자격이 미달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군이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직분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만들어 가는 것은 축복을
받을 일이며 하늘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일이다.
이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받는 길로 걸어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 압 고 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 임 목 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4 새 찬송가 2, 1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그대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 파 유대인들이

◎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 히브리 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 음식 봉사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 아 멘 -

찬 송 : 93 (새 찬송가 93)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사도행전 6 : 1 ~ 7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선한 일군을 세워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78 (새 찬송가 597)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4 (새 찬송가 4)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4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노인숙 최은희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최은희 집사 (다음 조인경 집사)

기 도 : 오정순 권사 (다음 김철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정기화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김영님 집사 (다음 김미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 회 소 식 *****

1. 특별 세미나.

주제 : 자녀들과 효과적인 소통방법

강사 : 김금운 권사 (동명교회)

샘솟는 아동청소년상담센터소장.

초당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일시 : 4월 21일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 3시부터

2. 화 요 전 도 모 입

매주 화요 오전 10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 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3. 금 요 밤 기 도 회.

금요 밤(26일) 기도회는 각 교구장 구역장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4. 신 앙 성 장 프 로 그 램

안 하신 분은 시작하시고 하신 분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5. 남 녀 전 도 회 장 각 부 서 장 기 도 모 입

다음 주 28일 오후 예배 후 석정동에서 모입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윤

풍암 주택

본문 말씀 요약 (4 / 21) 2013

제 목 : 선한 일군을 세워라

성경말씀 : 사도행전 6 : 1 ~ 7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군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생명운동을 이루어 가시며, 그
자격에 대하여 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울 때의 과정인데,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불과 몇 달 만에 수천수만의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유무상통하고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불과 12명의 사도로서는 그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게 보살피기가 어려워 여러 교우들에게서
불편한 일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에 선한 일군들을 세우게 됐는데,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다.

위 말씀을 합하면, 1) 성령 충만 2) 믿음 충만 3) 지혜 충만
4)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자신을 믿음과 말씀에
순종시켜서 충성하므로 자연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
첫째,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드리는 일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는가? 지각하여 줄거나 잡념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무심하거나
거부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제일 존귀하고 기쁘게 여기며,

그 자리에 늦거나 빠질 수가 없으며

눈을 감고 줄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압박을 한다 해도
겸손히 회개하며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지
감히 거부적이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제도에 협력한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고 좋지 않음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임을 알고, 선포되는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한다.
교회에 일군을 세운 목적이 교회에 불편한 일을 줄이고, 원망할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는데, 정작 교회에 일군 된 자가 교회의
일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판이나 원망을 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도 없고 칭찬 받을 수도 없다.

셋째,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다. (말라기 3:8-12)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나 헌금
을 아까워하며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지혜로 보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영, 육간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을 얻는 일이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고
타락된 문화나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수가
없다. 돈에 사로잡히거나 술, 담배, 도박, 게임 등의 타락된
문화와 미신적인 풍속이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사람은
교회의 귀중한 일군으로는 자격이 미달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군이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직분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만들어 가는 것은 축복을
받을 일이며 하늘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일이다.

이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받는 길로 걸어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본문 말씀 요약 (4 / 21) 2013

제 목 : 선한 일군을 세워라

성경말씀 : 사도행전 6 : 1 ~ 7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군들,
곧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생명운동을 이루어 가시며, 그
자격에 대하여 신,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본문은 초대교회에 안수집사를 세울 때의 과정인데,
오순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
불과 몇 달 만에 수천수만의 성도로 부흥하게 되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유무상통하고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불과 12명의 사도로서는 그
많은 성도들을 원만하게 보살피기가 어려워 여러 교우들에게서
불편한 일과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회에 선한 일군들을 세우게 됐는데,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 했고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다.

위 말씀을 합하면, 1) 성령 충만 2) 믿음 충만 3) 지혜 충만
4) 칭찬 듣는 사람인데, 이는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자신을 믿음과 말씀에
순종시켜서 충성하므로 자연히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
첫째,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제일 중요한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예배드리는 일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빠질
수 있는가? 지각하여 졸거나 잡념의 나래를 펼 수가 있는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무심하거나
거부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제일 존귀하고 기쁘게 여기며,

그 자리에 늦거나 빠질 수가 없으며

눈을 감고 졸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없는 것이다.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압박을 한다 해도
겸손히 회개하며 그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지
감히 거부적이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

둘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에 충성하며 제도에 협력한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고 좋지 않음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임을 알고, 선포되는 말씀에 착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간다.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에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한다.
교회에 일군을 세운 목적이 교회에 불편한 일을 줄이고, 원망할
일들을 해결하는데 있는데, 정작 교회에 일군 된 자가 교회의
일을 불편하게 하거나 비판이나 원망을 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도 없고 칭찬 받을 수도 없다.

셋째,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드린다. (말라기 3:8-12)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나 헌금
을 아까워하며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가? 믿음의 지혜로 보면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영, 육간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늘에 상급을 얻는 일이라,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넷째,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없고
타락된 문화나 술, 담배, 도박, 마약 게임 중독 등에 빠질 수가
없다. 돈에 사로잡히거나 술, 담배, 도박, 게임 등의 타락된
문화와 미신적인 풍속이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곧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며, 이런 사람은
교회의 귀중한 일군으로는 자격이 미달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일군이 되는 것은 축복된 일이다.

직분을 사모하고 그에 합당한 자격을 만들어 가는 것은 축복을
받을 일이며 하늘에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일이다.

이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받는 길로 걸어가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본문 말씀 요약 (4 / 28) 2013

제 목 :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 마태복음 1 : 1 ~ 6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어 산다.

잘 한 일은 잘 한 일대로 회상하며 그리워하며 살고

못한 일은 못한 일대로 거기에 얽매어 괴로운 삶을 산다.

때로는 과거에 잘 한 일을 내세워서 현재에 잘못하는 일들을 덮으려 하거나 현재에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잘못된 일들에 발목이 잡혀서 발전을 못하고 고민과 갈등 속에 후회의 삶, 자책의 삶을 살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를 않고 잘한 것만 내세우며 교만하게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한 것은 잊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며 자포자기의 열등에 삶을 산다.

그러나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즉 잘못된 과거에 얽매어 살거나 잘한 과거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과거에 삶보다는 현재의 삶이 어떤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따라 축복도 하시고 이에 따라 징벌을 하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의 삶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냐 하는 것이다.

본문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과 그 족보인데,

남자민의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족보에 기이하게도 네 명의 여인이 나온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이다. 위 네 여인은 훌륭한 여인들이 아니다. 인간의 상식과 윤리로 보면 부도덕하고 아주 잘못된 여인들이다. “다말”은 첫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도 죽어서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시부와 동침한 부도덕한 여자요(창38:18)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으로 민족과 나라를 배반한 여인이다. (수2:1) “룻”은 첫 남편이 죽어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으며(룻1:3, 신23:3) “밧세바”는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외면하고 다윗 왕과 간음을 한 부정하고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다.(삼하11:2-5)

이러함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참여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하늘에 축복을 받고 기념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

이 여인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첫째,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수2:8-11) 구 321

몸을 파는 기생, 결혼에 실패한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할 이방 여인, 불륜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들은 잘못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과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께서만 천하 만물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다.

둘째,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었다. (창49:8-10) 구 79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원수인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만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구주로 믿은 것이다.

자신들의 삶이 비록 부도덕하고 불결한 삶이었지만, 그에서 벗어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뿐임을 알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소망하였다.

셋째, 믿은 대로 행동하고 전진했다. (룻1:15-18) 구 402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 신이심을 믿고, 죄악과 사망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은 다음,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된 삶, 더럽고 누추한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그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행동하고 실천해 나갔다.

자기 나라와 민족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였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과 축복을 사모하며 전진해 나갔다.

여인들의 이런 믿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과거에 부정한 행적을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믿음과 그 행동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고, 족보에 참여케 하며, 성경에 기록케 하여, 이 여인들의 믿음과 행동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현재의 믿음과 행함을 보시는 하나님 !! 현재 내 믿음과 행함은 어디에 서 있는가? (겔33:11-16) 구 1202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14 (새 찬송가 1. 2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 ◎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 ◎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 ◎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벳을 낳고
- ◎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 아 멘 -

찬 송 : 94 (새 찬송가 96)

기 도 : 목 사 (다음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1 : 1 - 6 신약 1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86 (새 찬송가 368)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5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마리아헌신예배

사 회 : 임예진 집사 (다음 조인경 집사)

기 도 : 임문숙 집사 (다음 김철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유정숙 집사 (다음 유덕남 집사)

기 도 : 김미숙 집사 (다음 진 화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 이사야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2.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3. 금요 밤 기도회.

금요 밤(3일) 기도회는 찬양대 주관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4. 신앙성장 프로그램

안 하신 분은 시작하시고 하신 분은 더 잘하시면 좋습니다.

5. 남녀 전도회장 각 부서장 기도모임

오늘 오후예배 후 3시30분에 석정동 복지기도원에서

남녀 전도회장과 각 부서장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윤

풍암 주택